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제2부> 문화 향기 현장속으로
 〈32〉 ‘광주챔버싱어즈’

“노래로 작은 이웃 사랑 뿌듯하고 행복”



광주챔버싱어즈는 지난해부터 연주회 수익금을 난치병 어린이 치료 기금으로 기탁하고 있다. 올해는 수익금 전액을 전남대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손영대 군 등 7명의 어린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광주챔버싱어즈 제공>

지난 연말 광주챔버싱어즈 단원들은 조선대학교 병원을 방문했다.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박민성(12)군 등 난치병 아이들에게 음악회 수익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단원들은 자신들의 ‘노래’로 작은 이웃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뿌듯하고 행복했다. 이날 전달한 치료비는 600만원. 민성군을 비롯해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이종빈 군 등 3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지난 2004년 창단된 광주챔버싱어즈(단장 주영희)는 당초 현재 지휘를 맡고 있는 박호진(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광주대성여고 교사)씨의 고등학교 제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였다. 이후 합창을 좋아하는 다양한 이들이 함께 모였고 현재는 22명의 단원이 활동중이다. 지금까지 다섯차례의 정기연주회를 가진 광주챔버싱어즈는 기독교 신자들이 주축을 이룬 합창단이라 주로 지역 교회에서 성가 등을 공연했고, 광주합창제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단원들은 지난해 정기 공연부터 문화로 ‘사회에 공헌하고 사랑을 나누는 법’에 대해 의견을 모으기 시작했다. 주변의 합쳐하는 이웃들에게 자신들의 작은 역량의 노래로 사랑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

연주회 수익 난치병 아이들 후원 29일 광주문예회관에서 공연 예정

이다. 다른 이들과 난치병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건 의사인 주영희(학문외과 원장) 단장을 통해 아이들의 어려운 상황을 많이 전해들었기 때문이었다. 광주챔버싱어즈는 이 때부터 정기연주회 수익금은 단 한푼도 쓰지 않고 전액 난치병 아이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쓰기 시작했고, 지난해는 수익금 전액을 조선대 병원이 추천한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단발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광주챔버싱어즈라는 이름이 이어지는 한 힘 들어하는 아이들을 돕는 일은 계속하겠다고. 지난해와 올해 단원들은 ‘좋은 마음’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로 스폰서를 잡고 티켓 판매를 위해 열심히 뛰었다.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십시일반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정성을 보태는 모습에 작은 감동도 받았다. 광주챔버싱어즈는 오는 29일 오후 4시, 7시30분 두차례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난치병 어린이

를 후원하는 제 5회 광주챔버싱어즈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이번 공연의 수익금은 전대병원에서 치료중인 손영대(2세), 정민국(10세) 군 등 7명의 아이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의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동명교회 착한 이들의 소그룹 중창단, 리베라이합창단이 함께 이웃사랑의 마음을 전한다. 또 이날 무대에서는 힘겹게 투병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도 상영, 관객들도 주변 이웃들에 대해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예정이다. “함께 모여 노래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지속적으로 이웃 사랑을 베푸는 단체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시작은 늦었지만 노래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합니다. 음악회에 오시는 분들 중 단 몇분이라도 이웃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박호진 단장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비록 작은 도움일지라도 저희 합창단이 운영되는 한 아이들을 돕기 위한 음악회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gjchamber>.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쌍투스앙상블’은 자그마한 지역 교회와 재할원 등을 찾아 노래로 사랑을 전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더불어 함께 ‘거룩한 하모니’

기독교인 성악가 그룹 ‘쌍투스앙상블’, 교회·소외 이웃 찾아 공연

기독교를 믿는 성악가들로 구성된 쌍투스 앙상블(단장 이선형)은 노래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단체다. ‘쌍투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거룩하다’는 뜻. 지난 2001년 첫모임을 결성한 후 김은선·노연선·홍선희·이환희(이상 소프라노), 임선아·신은정·윤혜진(이상 알토), 김백호·장호영·송태왕(이상 테너), 김귀만·염종호·황성철(이상 바리톤)씨 등 성악가와 타악연주자 김용성, 피아니스트 김은아씨가 활동중이다. 회원 모두 이탈리아, 미국, 독일 등에서 오랜 시간 공부한 이들로 귀국 후에는 오페라 등 각종 무대에 서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베테랑 성악가들이다. 쌍투스앙상블은 한달에 두차례는 광주·전남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찾는다. 아무래도 도심 교회들과 달리 규모가 작은 교회들은 성가 등 음악에 감동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박하고 꾸밈 없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연주회가 열릴 때 자신들의 공연을 보고 감동을 받는 이들을 접하면 단원들 역시 행복감을 느낀다. 단원들은 또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무대도 잊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교도소, 보육원, 재활원, 군부대 등에서 공연을 가졌고, 광주 첨단공원에서 열린 ‘첨단공예민음악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광주시립장애인 복지관에서 작은 공연을 열었다. 성가곡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프로그램을

짜고, 복지관을 찾은 장애인들에게 간단한 식사를 대접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12월에는 지적장애인들이 다니는 은혜학교에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 하남공단에서 무등전착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형 단장은 쌍투스앙상블의 든든한 후원자다. “교회 장로고, 또 노래를 참 좋아해요. 제가 노래를 못하니 후원이라도 해야죠.(웃음) 따로 정기연주회를 갖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연주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단장은 “음악회도 의미있지만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쌍투스앙상블의 리더를 맡고 있는 성악가 염종호씨는 “우리가 받은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은 느낄 수 없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 좋다”며 “앞으로 좀 더 많은 이웃들과 음악을 나눌 수 있도록 활동 폭을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후원: **Land Life Love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광주지사
한국전력공사
 KOREAN ELECTRIC POWER CORPORATION

남성 헤어 기능장 **大山프리모남녀기발**
 타사제품·보상한액 **프리모** **HAVER** THEATRE
가발
 SBS-KBC ‘사람세상’ 촬영
초슬림!!
 귀하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올려주는 **명품한정본자가 되실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062-213-5200, 213-4822
 홈페이지: www.062-407-5300

실종된 애인을 찾습니다!
30,40,50부킹몰!
기분 ₩19,500 경제가 맞는 날까지 푸-욱 계속 됩니다
서울권광케바레나이트
 (대인동 롯데백화점 뒤/예약:062-226-9334)